

日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일 청소년 에너지캠프 가보니



재일교포 장재훈(17)군이 6일 밤 영광군 백수읍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진행된 '나의 후쿠시마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지진 당시 경험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영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일본만의 문제 아냐” 원전 확산 방지 공감

### “후쿠시마 사람들 오염됐다” 왕따 당해 큰 고통

### ‘원전공포’ 목격담 한국친구들에게 생생히 증언

규모 9.0의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 여기에 방사능 유출까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는 초토화 됐다.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은 여전히 인적이 끊긴 ‘유령도시’로 남아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아직까지 삶의 터전을 되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후쿠시마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일 청소년 에너지캠프 ‘태양과 바람으로 함께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후쿠시마 지역에 거주하다가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로 많은 것을 포

기할 수밖에 없었던 후쿠시마 지역 중·고생 8명이 광주를 방문,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환경보호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지역인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등에서 온 중·고등학교와 일본 학생들은 자신들과 같은 또래인 한국 청소년들에게 원전사고 당시 생생한 목격담과 느낀 점을 들려줬다.

6일 밤 영광원전 인근인 영광군 백수읍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진행된 ‘나의 후쿠시마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8명의 일본 청소년들은 원전사고 당시 상황과 계속되는 피해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온 재일교포

장재훈(17)군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속보가 나오더니 집이 흔들리고 물건이 나뒹굴기 시작했다”며 “울면서 집 밖으로 나오니 거리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회상했다.

지진 당시 미야기현에 살았던 신예권(14)군은 “눈에 보이는 지진의 충격도 무서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더욱 두려웠고 결국 가족 전체가 야마가타현으로 이사를 갔다”며 “아직도 집 없이 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스즈 타테노(17)양은 지진과 원전 사고가 지났지만 또다른 상처로 고통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타테노 양은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 사람들이 후쿠시마 출신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따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후쿠시마 변호관이 달린 차를 타고 도쿄에 갔다가 ‘후쿠시마로 가져’라는 낙서가 적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진과 방사능 피폭, 여기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후쿠시마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끝까지 않은 고통을 호소했다.

캠프에 참여한 일본 학생들은 원전의 위험이 후쿠시마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원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일본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캠프에 참가한 광주 살레시오중학교 1년 김주홍(13)군은 “방사능 때문에 고향을 떠난 친구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후쿠시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사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됐는데 영광 등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많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며 “방사능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영광=양세열기자 hot@

# ‘동양 최대’ 신안 우이도 모래언덕 사라지나

### 절반 가까이 감소... 다도해국립공원 대책 부심

‘자연이 빚은 최고의 조각품’이란 찬사를 받았던 동양 최대 모래 언덕(砂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생태계 회복 노력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신비로운 절경은 평범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도초면 우이도 사구, 모래언덕 면적이 해마다 줄자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5년간 사구 출입통제, 식생·바람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지만, 높이 70~80m, 폭이 밑쪽 20m 위쪽 50m, 경사 70~80도로 웅장함을 보였던 사구는 이제 반쪽이 됐다. 우이도 한 주민은 “높이가 30m 낮아지고 폭도 좁아지는 등 사구 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사구 해안에서 종턱까지 통보리, 좀 보리사초 등 사구 식물이 무성하게 자랄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절경도 자취를 감췄다.

국립공원사무소 측은 바람이 모래를 이동시켜 만든 사구에 잡초 등 사구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모래언덕이 안 되고 쌓이지 않아 면적이 점차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전부터 1년에 두 차례씩 북서쪽 소나무와 식물을 제거하고 정밀장비를 통해 그 결과를 관찰하고 있다.

우이도 사구는 여름철엔 사구의 신비함을 만끽하며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가을에서 봄까지는 바람에



‘동양 최대’ 신안 우이도 모래언덕(砂丘)에 종턱까지 잡초가 차올라 평범한 섬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연합뉴스

휩쓸린 모래가 빚어 놓은 ‘바람과 모래의 조각품’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작가들과 관광객이 몰려 탄성을 내지르던 명소가 됐다.

그러나 모래 유실 등으로 비경이 사라지면서 점차 사구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북극 얼음 33년만에 절반 이상 녹았다

### 1980년대 대비 54.5% 줄어... 한반도 18배 규모

북극해의 얼음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33년만에 절반 이상 녹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작년 지구는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0위 내에 들 정도로 더웠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52개국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2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최근 인터넷에 공개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 해빙(바닷물이 언 얼음)의 작년 9월 최소 관측치는 132만 제곱마일로 1980년 수치(290만제곱마일)의 45.5%에 불과했다.

이 기간 사이에 줄어든 북극 해빙은 158만 제곱마일(약 409만2000km)로 33년 사이에 한반도의 18배 또는 미국 면적의 약 42%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진 셈이다.

NOAA는 작년 북극 얼음의 최소 관측치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작았다고 전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2007년의 161만 제곱마일과 비교해서도 약 18% 더 줄어 들었다.

북극 지역은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보다 약 두배의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다.

작년 미국 알래스카 최북단의 영구동토 기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도 작년 7월 11~12일 땅을 뒤덮은 대륙빙하의 97%가 녹기 시작했는데 이 비율은 예년 평균치의 무려 4배에 달했다.

캐스린 샬리번 NOAA 국장대행은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고 우리 지구 전체가 더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2012년은 인류가 19세기 초중반 기상관측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역대 10위



내에 들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계속 늘었다. 화석연료 소비와 시멘트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작년 9.5±0.5 페타그램에서 작년 9.7±0.5 페타그램으로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페타그램은 1000조그램을 뜻한다.

기후 온난화로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증가하고 세계 각지에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가 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亞문화전당 법인화 철회 투쟁 나선다”

### 지역문화단체 “여론 무시한 처사” 본격 활동키로

지역문화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 철회 투쟁

에 나선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4개 단체는 7일

가 협력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단체들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대해 “안전행정부도 전당 운영은 법인이 타당하다. 입법예고 절차와 과정에 국회·광주시·전문가·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조성사업 파트너로서 지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관·전문

**2013년 2학기 公國認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연수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1급~시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간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연수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1급~시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구.한미소점,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오후반: 30명 기초아간반: 30명  
심화오후반: 30명 심화아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14:00~17:00 아간반: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용/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 \*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함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 본 점 | 궁동 예술거리 010-3603-7981
-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